

전남도·완도군, 현실성 없는 투자협약 '논란'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지난 19일 수산식품 가공공장 등 6개 기업과 총 307억 원을 투자해 130여 명에게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6개 기업 대표들은 2020년 까지 협약서에 나타난 자본금을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유통, 가공업체인 A기업이 76억 원, B농협이 58억 원, C기업 50억 원 등 6개 기업 총 307억 원이다.

그러나 이 협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금 조달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6개 기업과 총 307억원 투자 130여명 일자리 창출 체결

투자금 조달방법 등 구체적이지 않아...성과주의식 행정

않고 단지 장기적인 계획으로만 이루어진 협약이라는 것이다.

완도군내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D기업은 현재 이 업체들은 회사 사장이 수십억 원의 자본을 투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협약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신우철 완도군수, 조인호 완도군

의회 의장 등과 이철·신의준 전남도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농수축산업이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화 기반을 확고히 다져야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적극 뒷받침해 농수축산업 분야에서의 성공스

토리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도지사의 포부는 완도군의 성과주의식 행정으로 공염불로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완도농공단지에서 수산가공업을 운영하는 기업대표는 "완도군이 지난 민선6기에서도 투자양해각서(MOU)를 남발했었다는 소문이 있

는데 민선7기에도 투자양해각서가 남발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투자협약도 완도군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너무 과다한 행정을 추진할 결과이며, 완도 수산가공업체들의 현실을 잘 모르는 전남도지사에게 잘 보여서 전라남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일방적인 기망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참석한 사람 중에는 기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투자금을 만들지 등 구체적인 계획들을 청취하지 않아 투자협약식에 들러리리 참석했다는 지적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완도군, 보고 먹고 즐기는

'서울발 당일치기' 팸투어

서울·경기 관광객 유치 기대

완도군은 지난 19일 서울·경기 지역포럼단 40명을 대상으로 고속전철을 활용한 당일치기 완도 관광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3월 14일에 (주)SR과 완도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공동 추진하였

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오전에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중식으로 완도의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먹고 우리나라 최대 난대림 근린지인 완도수목원에서 여유를 즐겼다. 이후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직접 전복을 채취하고 전복요리를 시식하는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주)SR 마케팅 담당자는 "완도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 향기가 느껴지는 완도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며 "앞으로도 완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팸투어에 참가한 지역포럼단 모두가 완도의 자연 풍광, 먹거리, 넉넉한 인심 등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팸투어, 완도관광 모바일 스탬프 투어 특별 이벤트와 광주·전남 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광주 유스퀘어 광장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원도=김광수 기자

여주시 "이제 카카오톡으로 민원접수 하세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시작

여주시민들은 23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생활불편 민원 접수부터 상담, 처리결과 통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주시는 시민소통 강화와 현장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해 23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이용 시민

이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카카오톡에서 '여주시'를 검색 후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후 1:1 대화를 통해 생활 불편 사항부터 단순 시정문의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는 카카오톡을 재난·위급상황이나 시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통로로도 이용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장흥군, 폭염 비상령 발동

내달 말까지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나서

장흥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폭염 비상령을 발동하고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폭염경보 발령 이후 연일 고온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폭염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폭염 대비 합동 T/F팀장으로 지정해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에는 관내 건설공사 현장관계자 및 공무원 35명에 대해 폭염대응 현장 인부들 휴식시간 확행 등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장 폭염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는 읍면 무더위쉼터 방방기 점검, 독거노인과 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방문 및 안부

전화, 조식 폭염예방 마을방송을 당부했다.

축사, 시설하우스 양식장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 긴급재난 문자 발송,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응급조치 점검 강화 등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뜨거워진 도로를 식히기 위해 장흥읍 중심도로 도로물 뿌리기를 실시하고, 통행객이 많은 터미널, 토요시장, 불축제장 주변 도로변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254개소는 쿨스카프 2천개와 부채 5천개를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정종순 군수는 "폭염이 해소될 때까지 소방서, 병원, 군·읍면 관계자와 다각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 서시장주변시장, 중기부 희망사업프로젝트 선정

이달 최종 결정...2019년까지 국·시비 8억6000만원 투입

쇼핑·관광 인프라 구축,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 등

여수 서시장주변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희망사업프로젝트 대상 사업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상권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서시장주변시장은 이달 중기부 공모사업인 희망사업프로젝트 최종 대상지로 결정돼 국비 4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4월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서시장주변시장은 두 달여 간 사업계획 수립과 최종평가 등을 거쳤다.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각 시장만의 특화요소에 집중해 쇼핑·관광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디자인 환

경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서시장주변시장에는 국비 4억3000만 원, 시비 4억3000만 원 등 8억6000만 원이 투입된다.

시와 상인회는 2019년까지 노점광장에 먹거리 판매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연등천변을 이용한 관광 동선도 개발할 계획이다.

서시장주변시장은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면적은 2만 3110㎡, 점포수는 240개, 주요 판매 품목은 의류·수산물·식당·잡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



여수 서시장주변시장 내 축발·공창 특화거리 '갯돌 스트리트' 간판 모습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홈페이지 : www.j-honam.com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매체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